

함글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95

2018.6.10

2018년 주님의교회 표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요한복음 3:16-17, 창세기 12:3, 마태복음 9:35)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_ 로마서 14:17

오늘의 주요기사

- 2 연간특집 / 성경 이야기
- 3 보훈의 달 특집 평화를 생각한다
- 4 사역소식
- 5 목회칼럼 / 선교지 소식
- 6 아가나들이 / 공동체 소식

교회 일정

- 6/10(주일) 정기당회
- 6/17(주일) 통일선교주일
- 6/20(수) 창립기념음악예배
- 6/24(주일) 30주년 창립기념주일 / 창립기념예배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글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 제5대 김화수 목사 위임식

2018년 5월 20일(주일) 오후 4시, 주님의교회 제5대 김화수 담임목사의 위임식이 주님의교회 대예배실에서 약 700여 명의 교우들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위임목사’는 교회법상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를 뜻한다. 위임식 후에는 교회의 공식적인 대표자가 되며,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의 의장의 역할과 교회행정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갖게 된다. 위임목사의 위임식은 노회의 주관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김화수牧사는 지난 4월 4일 주님의교회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로 청원하는 건이 결의된 후, 4월 17일 개최된 평양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주님의교회 위임목사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날의 예식은 위임 예배와 예식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예배는 평양남노회 노회장인 지용석 목사의 집례로 거행되었다. 예배는 양동훈 은퇴장로의 대표기도, 미시오데이 찬양대의 찬양, 평양남노회 강남시찰장 송용섭 목사의 성경봉독, 김화수 목사의 청년 시절 신앙의 멘토였던 삼덕교회 김태범 원로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김태범 목사는 설교에 앞서 김화수 목사가 삼덕교회 청년부 회장을 지냈으며, 임원으로 함께 사역하던 자매를 배필로 맞았다는 것, 신대원 시험에서 전채수석을

한 수재였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누가 주의 종인가?” 제하의 설교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는 왕 같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군주형 목사, 대기업 총수 같은 CEO형 목사, 연예인 같은 스타형 목사 등이 유능한 목사로 추앙받고 있으나 성경은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종, 겸손한 종, 동정심 많은 종, 고난 때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는 종을 주님의 종이라 일컫고 있음을 강조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교회를 잘 섬기는 주의 종이 되길 간구했다.

예배에 이어 담임목사 위임예식이 진행되었다. 위임예식은 김화수 목사의 약력과 경력 소개, 담임목사의 서약, 주님의교회 교우들의 서약, 위임 선포, 위임패 증정, 전교인 기념품 증정의 순서로 이어졌다.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위임받은 김화수 목사에게 주님의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도록 맡겨진 일 잘 감당하기를 권면하였으며, 평양남노회 부노회장인 최재범 목사는 교인에게 주는 권면을 통해 교회 발전을 위해 함께 하기를 기원했다. 임마누엘 찬양대 천민정, 임다빈 자매의 축하와 장식교회 함택 목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온 교우들과 하객들의 축복송을 들으며 등단한 김화수 목사는 감사인사를 통해 부목사로 사역하다 떠

난지 19년 만에 주님의교회에 다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행하여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네 10년 나 다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온 만큼, 앞으로의 10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알고 목양에 힘쓸 것임을 다짐하였고, 임기를 마무리할 때 “10년 제대로 썼다”라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했다.

남녀선교회, 안수집사회, 권사회에서 꽃다발을 증정했고, 이어 전교인을 대표하여 청년부회장이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날의 위임예식은 김성구 서기장로의 광고와 전 노회장 조남주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교인과 가족, 노회의 귀빈들이 참석한 이날의 위임식은 시종일관 허례와 형식을 배제하고 진솔하게 진행되어 감동을 주었다. 특히 김화수 목사의 청년 시절 신앙의 멘토인 원로 목사, 젊은 시절부터 목회자의 길을 함께 걸어 온 친구 목사 분들의 “앞으로 사역을 더 잘하려고 하보다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만 하시라”는 한결같은 권면은 김화수 목사의 겸손하고 소박한 성품을 그대로 증거하는 듯했다. 위임예식의 모든 장면은 교회 홈페이지(예배>특별예배>기타예배 및 행사>김화수 담임목사 위임예배)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함글함울

연간특집 / 2018년 주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7

선교적 관점에서 본 ‘세상 속으로’(1)

2018년 주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역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 안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볼 기회를 갖는다. <함줄함울>은 총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한 자료를 입수, 요약 분재하여,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본다.

목차

1. 종교개혁과 ‘거룩한 교회’의 참된 의미
2. 교회의 ‘거룩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3. ‘마을목회’,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4. ‘마을목회’의 성서적 배경
5. 선교적 관점에서 본 ‘세상 속으로’

선교적 측면에서 보자면 2018년 주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는 교회의 거룩함이 세상 속에서 선교적인 빛으로 드러나야 함을 의

미한다. 칼뱅(John Calvin)에 따르면 교회의 거룩함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주어지기 보다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매 참여함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칼뱅은 구원론적 측면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자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게 해주시는 영이시지만, 창조-섭리론적 측면에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의 영(Spiritus Creator)이시기에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영으로 본다. 따라서 칼뱅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매로 묘사하면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에 의해 이 몸매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는 동시에 몸매의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는 주제가 암시하듯이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선교적 측면에서 세상 속에서의 거룩함보다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존재하는 거룩함만을 강조해왔다.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신 예수처럼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타락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철저히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이해가 강력하게 작동해 왔다. 선교는 교회의 많은 활동이나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었고 교회의 성장이 교회의 선교의 유일한 목표가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동일시되었다.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성장을 위한 대상으로 전략하였고 구원론적 측면에서 세상은 교회의 정복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한국교회 안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위기’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한국사회가 마주한 위기가 아니라 교회성장이 멈추고 감소하기 시작하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

하는 것이었다.

한국 교회의 자기중심적인 선교이해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서구의 기독교왕국(Christendom)의 패러다임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마치 한국교회는 한국사회가 서구와 같은 기독교왕국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신을 그 속에 있는 교회로 생각하면서 이 패러다임을 알게 모르게 고수해왔다.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작동되기 시작한 이 패러다임에서 선교는 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교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가졌다. 또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후로, 서구에서 이제 선교는 국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고, 문명인(로마인)이 비문명인(비로마인-야만인)을 계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되었다.(계속)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 - 더 바이블(The Bible)14

7. 모세오경

신명기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책은 신명기이다. 신명기의 가치는 단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인용했던 구절들만 유명한 것이 아니다. 신명기는 성경 중에 가장 개혁적인 책이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는 모세오경을 확정짓는 책이기도 하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희망했던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신명기는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다루었던 책의 마무리이며 성경 66권의 해석을 열어주는 책이다. 그러한 신명기는 대부분이 율법을 다루며 율법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한 주석과 해석을 말해주고 있다. 신명기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회기본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율법

으로 확정하고 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이며(역사서) 예언자들이 자신들의 인사이트로 얻은 하나님의 말씀의(예언서) 올바름을 판단할 수 있는 성서 해석학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명기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가 율법을 수여받게 되는 배경 곧 아라바 광야이자 싯딤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성경은 전반부를 통해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일련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금송아지 사건과 십계명에 대한 말씀,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했어야만 했던 이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은 어떻게 그들의 삶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일련의 지켜져야 할 기준이지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갈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이 지내온 역사의 한부분이며 삶이다.

신명기 중심부는 율법만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출애굽에서부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삶으로 지켜왔던 율법을 정리하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율법에 대한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신명기 중심부에서 12-26장은 성경중의 성경으로 그 가치가 이미 증명되어 있다. 이 신명기 핵심은 이스라엘 사회가 희망하고 소망했던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알게 한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 사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지를 그 마지막에 알려주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나 현재 하나님의 공동체가 꿈꾸었던 모습은 방

법과 그 시대의 적용에만 차이가 날 뿐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현재-미래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갖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소수의 인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하며 깨닫도록 안내한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성경은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성경은 힘들지만 기초부터 쌓아가며 학문과 신학적 기반을 토대로 꾸준히 읽고 해석하며 적용해야만 한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공동체로 계속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이은석 목사

호국보훈의 달 특집 | 다시 평화를 생각한다

예수의 평화(1)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는 분명한 표제가 붙는다. ‘호국보훈의 달.’ 과거의 공적을 되새기고(보훈), 오늘의 노력을 독려하는(호국) ‘호국보훈’의 구호 속에는 우리 앞에 놓인 미래의 목적과 방향이 강하게 함축되어 있다. 바로 평화. 우리 선조는 평화를 위해 헌신했고, 그 헌신 위에선 오늘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게다가 최근 급박하게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곧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은 평화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희망을 어느 때보다도 더 부풀게 하고 있다.

성서에서도 평화는 중요한 주제다.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은 구약성서에서 237회나 사용되었고, 역시 평화를 뜻하는 그리스어 “에이레네”도 신약성서에서 91회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평화(“샬롬”)였고, 그 평화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무엇보다 성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자(누가복음 2:14), 평화 자체(에베소서 2:14)라고 선언한다. 이 글에서는 평화를 염원하는 6월을 맞이하여,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평화에 관해 2회에 걸쳐 곱씹어볼 것이다. 특별히 시선을 예수 시대로 고정하고 예수께서 선포하고 실천하신 “예수의 평화”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평화 프로그램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후 곧 로마는 내전에 휩싸인다. 이 내전은 기원전 31년 악티움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클레오파트라 연합군에 승리를 거둠으로써 막을 내린다. 기원전 27년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신성한 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헌정하고 지중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온 옥타비아누스의 업적을 치하한다. 이로써 로마는 공화정의 역사를 마감하고 제국으로 재탄생한다. 아우구스투스 치하의 로마가 제국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가장 전면에서 내세운 개념 중하나가 바로 평화이다. 아우구스투스의 로마제국은

“팍스 로마나(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로마제국의 평화는 폭력적 전쟁과 그 승리를 통해 로마의 지배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면, “예수의 평화”는 폭력 - 포기와 정의를 통한 평화였다. “예수의 평화”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폭력 - 포기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묘사한 옛 그림

다양한 방식의 매체—시민제의, 문학, 신화, 주화, 각종 조형물 등—를 통해 제국 프로파간다를 전파했는데, 여기서 아우구스투스는 지중해에 평화를 가져온 분, 평화의 보증자, 평화의 황금시대를 도래하게 한 보편적 구원자등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로마제국의 지배질서는 평화라는 개념 하에 집약된다.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정형문구가 바로 “로마의 평화(팍스 로마나)”이다. 로마제국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정복 전쟁을 수행했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 평화와 안전을 도모했다. 이처럼 “로마의 평화”라 불리는 로마제국의 평화 프로그램은 폭력적 전쟁과 그 승리를 통해 로마의 지배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전쟁과 폭력은 평화를 향한 유일한 길이었고, 따라서 평화와 동일한 영광의 이미지를 덧입게 되었다. 종교적

색채로 치장한 제국 프로파간다는 이러한 폭력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선전하였다.

폭력과 비폭력 사이에서 : 폭력의 악순환 끊기

평화는 신성하며, 따라서 평화의 수단이 되는 폭력 역시 신성하다. 이 논리를 충실히 따르는 로마제국의 폭력 신성화는 개선장군의 입성식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로마의 깃발 아래 전쟁을 수행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곧 “로마의 평화”를 확장하고 공고히 하는 일이었기에,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식은 곧 평화의 축제였다. 개선행렬은 보통 개선장군이 강력한 군마를 타고 자신의 군대와 무기를 거느린 채 행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이 행렬에는 포로로 잡혀 곧 목이 베일 적장이 함께 전시된다. 이러한 폭력

전시행위를 통해 로마제국의 평화 프로그램은 모든 이의 마음 깊은 곳에 원형처럼 새겨진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이러한 개선식과 유사하게 묘사한다. 그러나 이 입성 장면은 철저하게 뒤집히고 뒤틀린 형태의 개선식이다. 여기에는 화려한 군대와 무기 전시도, 끌려온 적장 포로도 없다. 다만 자기 자신 포로처럼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께서, 군마 대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마태복음에 따르면(마태복음 21:7) 그마저도 이 나귀는 새끼를 동반한 암나귀인데, 이로써 예수께서는 나귀 등에 앉아 새끼 나귀의 걸음걸이에 맞춰 느릿느릿 입장하신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예수의 상징 행동을 스가랴서 9:9-10과 연관 짓는다.(마태복음 21:4-5)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 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새번역 스가랴서 9:9-10)

포로기 후기의 스가랴서 기자의 통찰처럼, 예수께서 이러한 상징 행위를 통해 드러내신 “예수의 평화”는 (로마제국이나 속주의 기생권력이 추구하던) 폭력과 승리를 통한 평화가 아닌, 폭력-포기와 정의를 통한 평화였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모든 폭력은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곧 또 다른 정의의 폭력으로 이어지며 순환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께서는 폭력을 폭력으로 누르며 그 폭력의 정점을 점유하는 것을 평화라 부르는 세간의 인식을 뿌리부터 뒤엎고자 하셨다. “예수의 평화”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폭력-포기에서 시작된다. (다음 호에 계속)

손경민 전도사

사역 소식

파주 삼성교회 사랑나눔 잔치



국내선교 위원회 서부선교부 주관으로 2018년 5월 26일(토) 파주 삼성교회(윤덕영 목사 시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나눔잔치를 열었다. 이미용부, 호산나 고전 무용팀, 사진부, 의료선교팀, 호스피스팀, 수지팀

등 모두 50여명이 참여하여 함께 봉사를 하며 행복의 공동체를 나누었다. 파주 삼성교회는 주님의교회 부교역자로 사역을 한 윤덕영 목사가 담임목사로 시무를 하고 있다.

함글함글

감사 편지

따뜻한 응원과 후원에 감사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삼성교회는 작은 언덕 위에 위치했으며 창립 61주년(5월 27일)을 맞았습니다. 저는 부임한 지 8년째이며 첫 번째 위임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 후원하고 진행한 사랑나눔잔치는 아주 적절한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지역과 소통할 수 있었고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5월 26일(토) 아침 아홉 시쯤 주님의교회에서 이미용팀, 고전무용팀, 사진팀, 의료팀, 호스피스팀, 수지팀 등으로 구성된 오십여 분이 오셨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교회의 마당을 지나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비록 장례와 마을잔치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마을도 있었으나, 백 명 가까운 분들이 초대에 응해주셨습니다. 오신 어르신들과 대화하면서 다양한 반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 줄 몰랐다”,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게 되었다(감격하신 듯)”, “이 교회가 다른 나라가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는데 와 보니 가깝네(마음 문을 여시며)” 등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예배당 지하실에서는 인물사진도 찍어주시고, 한방 수지침 치료와 양방 수액주사 등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사역을 보조하던 우리 교인이 사진팀이 즐겁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재미있고 보람이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목회를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는 주님의교회 교우들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김화수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윤덕영 목사

사역 소식

너나들이 봄나들이



지난 5월 27일 주일, 통일선교분과위원회 소속 남북청년모임인 너나들이에서는 교회 옆 아시아 공원 잔디밭에서 봄나들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늦봄의 쾌청한 날씨 가운데 너나들이 청년들은 함께 웅기종기 모여앉아 즐거운 나눔을 가졌습니다. 너나들이 모임을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함께 자연 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각 조별로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 김밥, 떡볶이, 순대, 어묵

뿐만 아니라 북한음식인 인조고기밥까지 주문하여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청년 커플이 모든 조에 피자과 치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주님의교회 너나들이 모임은 매 주일 11시30분 다목적교육관 3층에서 있으며 30명 가량이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가끔 관심을 가지고 모임에 찾아오는 성도님도 계시고 새로운 윗동네 친구도 방문을 합니다. 이 날

에도 새로운 청년 두 명과 집사님 한 분이 모임에 처음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모임이지만 이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매주 연습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구분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고 삶을 나누며 자라는 너나들이 모임과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들이 장차 이 통일이 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일군으로 놀랍고도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허준 목사

사역 소식

미시오데이선교찬양대 중앙보훈교회 위문예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미시오데이선교 찬양대에서는 서울중앙보훈병원에 있는 중앙보훈교회에서 찬양 위문 예배를 드렸다. 김대환 목사는 시편 40편 “내가 여기 왔나이다”라는 말씀으로 병상에서 투병 중인 환우분들과 보호자와 간병인들에게 투병 중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원했다.

해마다 호국의 달 6월에 찬양 예배를 드리며 참석을 한 환우들에게 조그만 선물도 드리며 조국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환우들께 많은 위로를 드렸다.

중앙보훈병원은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진료와 의학적, 정신적인 재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 평균 1,400여 환우가 입원하고 있다. 함글함글

목회칼럼

가시나무 그리고 숲

지난달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 주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이 강했고, 하나님은 그저 하나의 도구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지지만 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졌기에 아침마다 나의 어둠을 독대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

고, 헛된 바람이 있고, 내가 가진 어둠과 이길 수 없는 슬픔은 무성한 가시나무 숲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가시로 찢어 버리고, 또한 그 가시가 스스로 찢어 상처를 냅니다. 결국 누구도 다가올 수 없었고, 혼자가 되어 외로워하며 울어대는 이 가시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묵상이 끝나갈 때쯤, 오랜만에 아시아공원으로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공원의 풀과 나무는 봄과 다르게 너무나 울창했습니다. 6월의 숲은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며, 부드러운 바람이 뜨거운 열을 식혀 주었습니다. 나무와 풀이 주는 싱그

러운 향기는 지친 육신을 풀어주고, 상쾌한 기분을 허락해주었습니다. 새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격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잠시 여유를 주고, 지친 일상 속에서 작은 평안과 쉼을 내어줍니다. 이러한 숲을 거닐다 보니 하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품을 느끼게 합니다.

내 안에 수많은 가시로 어는 것도 품을 수 없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품어 주셨습니다. 외로운 나를, 눈물 흘리는 나를,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깊은 한숨을 받아주시고,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며,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6월, 세상의 고된 일상 속에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현 목사

선교지에서 온 편지

베트남 사역을 소개합니다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들께 문안드립니다. 이번에 함글함글을 통해서 저희 가정과 베트남 사역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저희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캠퍼스 커플로 만나 사귀다가 1998년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딸 수하와 아들 성규를 두고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행복해 보이죠! ^^ 베트남 올 때는 수하가 8살, 성규가 4살이었는데, 어느덧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훌쩍 커버렸습니다. 수하는 호치민 한국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한국으로 가서 한국외대

경영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성규는 호치민 한국학교 9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낯선 베트남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가운데 아이들이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잘 자라주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모두 장신대학부와 신대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대학원에서 선교학과 기독교 교육학을 각각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총회파송 선교사로 2006년에 베트남에 오게 되었으며, 2011년부터 주님의교회 파송으로 베트남 현지선교를 시작하여 8년째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베트남에서 행하시는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선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따라 협력과 나눔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교 원리를 가지고 저희는 지금까지 베트남 교회와 빈롱성 지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 교회와 협력하여 38명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주어진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교회를 대신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기회가 되는대로 탐방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신앙교육 발전을 위해서 원더풀키즈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신앙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 교회의 차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트남 신학교 신학생들을 위한 수련회와 장학금 지급 사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빈롱성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그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집 짓기, 장학사역, 아동 후원, 소득 증

대 사업 및 장애아 재활 복지 및 장애인 자립을 위한 천연 비누 사업 등을 통해 사회봉사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가족 소개 및 사역 소개를 드립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 가정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주님의 교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리고, 맡겨주신 베트남 사역을 통해 하나님나라의 가치를 잘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늘 두 손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최화평, 김사랑 선교사

아기나들이



박시은 아기

2018년 1월 24일생

1. 주님, 시은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게 하시고, 영육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소서.
2. 주님, 시은이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 받고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큰 사랑으로 자라나, 주 안에서 큰 꿈을 보며, 세상에 사랑을 베푸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소서.
3. 주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아빠 박태현 / 엄마 노민희, 2018년 5월 20일 3부 예배



송재윤 아기

2018년 2월 15일생

1.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행복한 삶 살기
2. 건강한 몸과 맘 가진 지혜로운 주의 일꾼
3. 때에 맞는 만남의 복

아빠 송창환 / 엄마 정유경, 2018년 5월 20일 3부 예배



김수호 아기

2018년 1월 16일생

1. 영육간에 강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2.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3.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빠 김범준 / 엄마 구창미, 2018년 5월 27일 2부 예배

공동체 소식

장애인 시설 개선, 안내표지 강화



《함글함글》 393호(2018. 4. 29)에서는 장애인 주간을 맞아 교회 내 장애인 시설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 보도한 바 있다. 교회에서는 차제에 장애인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안내 표지를 강화하는 한편, 주일 엘리베이터의 사용 편의를 위해 전담 사역자를 배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장애인 화장실의 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고, 엘리베이터의 안내 표지를 개설했다.

함글함글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기고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요즈음은 남과 북의 통일 문제가 국가적인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예전에 동독과 서독의 통일의 경우를 봐도 교회가 통일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다.

1989년 동독 라이프치히 시청 앞 성니콜라스 교회에서 있던 정기 촛불집회가 대규모 군중집회로 확대되어 결국 반체제 운동으로 번지면서 동독 정부가 경찰과 군인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자 진압세력이 이에 불응을 함으로써 결국 동독 공산정부가 붕괴되고 동서독의 역사적인 통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통일문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막연히 통일에 낭만적인 꿈에 들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해서는 우리가 꿈꾸는 좋은 의미의 통일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은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은 물론 통일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일관된 통일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훌륭한 민주 통일 국가가 탄생을 하였으면 한다. 지금 이 시간이 자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다.

박규택 은퇴안수집사

알립니다

1. 해외 비전트립 물품 후원

기간 : 5/20~6/10 매 주일 오전 8:30~오후 2:00

사역물품 : 선교지 요청물품 및 선교지청소년초청수련회 후원

문의 : 이재홍 안수집사(010.7738.4455)

▶ 제품 일괄 구매 및 세관 통관상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현금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 : SC제일은행 204-20-112255 주님의교회

2. 창립 30주년 기념 음악예배

일시 : 6/20(수) 오후 7:20 대예배실

▶ 전 교인이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꼭 참석 바랍니다.

3. 7.8월호 큐티책(큐티인) 판매

일시 : 6/17,24(2주간) 오전 8:30~오후 2:00 로비(1층)

가격 : 5,000원(권당 할인금액 500원은 교육목회원 큐티책 지원에 사용됩니다)

4. 주님의교회 30주년 발자취 사진전

일시 : 6/17~24(2주간) 교회 현관(1층)

문의 : 서정하 안수집사(010.9554.9715)

2018 주님의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음악예배6/20 Wed.
7:20 PM

주님의교회 대예배실

주관 : 주님의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추진사업본부
주최 : 주님의교회 음악위원회

30주년

출연 : 나
전교인 어린이 합창단
사온 남성찬양대
국악팀
권사회 찬양대
솔리스트 중창단
연합 찬양대
주요 오케스트라